



Review Article / 종설

『醫方考』 중 한의학 원전의 인용

김영은<sup>1</sup>, 곽홍석<sup>1</sup>, 이부균<sup>2\*</sup>, 류정아<sup>3\*</sup>

<sup>1</sup>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sup>2</sup>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학부,  
<sup>3</sup>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Cit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lassics in 『Yifangkao』

Young-Eun Kim<sup>1</sup>, Hong-Seok Kwok<sup>1</sup>, Boo-Kyun Lee<sup>2\*</sup>, Jeong-ah Lyu<sup>3\*</sup>

<sup>1</sup>Student of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3</sup>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how Wu Kun(吳昆) understood Huangdineijing 『黃帝內經』 and implemented his understanding when writing Yifangkao 『醫方考』 .

**Methods** : From Yifangkao 『醫方考』 , we collected all paragraphs including “經曰”, “內經曰” while excluding the ones with “論曰” to filter out Sanghanlun 『傷寒論』 's perspective. The contents of Huangdineijing·Suwen 『黃帝內經·素問』 and Huangdineijing·Lingshu 『黃帝內經·靈樞』 , cited in Wu Kun's Yifangkao 『醫方考』 were extracted, identified from which part it comes and sorted into headings under RyuPyeon Huangjenaegyung 『類編黃帝內經』 .

**Results** : The most cited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lassic in Yifangkao 『醫方考』 was Huangdineijing·Suwen 『黃帝內經·素問』 Yinyangyingxiangdalun 『陰陽應象大論篇』 which was cited 41 times. Zhizhenyaodalun 『至真要大論篇』 had a total of 39 citations followed by Shengqitongtianlun 『生氣通天論篇』 and Liuyuanzhengjidalun 『六元正紀大論篇』 which were cited 13 times and 11 times each.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other 28 chapters from Huangdineijing·Suwen 『黃帝內經·素問』 , 3 chapters from Huangdineijing·Lingshu 『黃帝內經·靈樞』 , 3 chapters from Nanjing 『難經』 and one chapter from Zhenjiujiayijing 『鍼灸甲乙經』 were also cited. Also the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Huangdineijing·Suwen 『黃帝內經·素問』 showed that 57 citations were classified as 'treatment', 41 citations were classified as 'Yin and Yang and Five phases', 39 citations were calssified as 'Cause and Mechanism of Disease'.

**Conclusion** : 1. Yifangkao 『醫方考』 have explained prescriptions by implementing principles from 5 kind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lassic including Huangdineijing·Suwen 『黃帝內經·素問』, Huangdineijing·Lingshu 『黃帝內經·靈樞』 etc.  
2. According to table 3, Yifangkao 『醫方考』 have cited Huangdineijing·Suwen 『』 to explain how each compounds were used and how the Korean medical principle of Yin and Yang was applied in the prescriptions.  
3. It can be suggested in formula study there is utility to understand principl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lassic to comprehend prescriptions.

**Key words** : Formula analysis, Discourse on Prescription, Yifangkao, Huangdin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lassics.

## I. 서론

방제의 성질을 밝히며 논하는 ‘方論’은 汪昂이 『醫方集解』에서 “方에 解가 있는 것은 成無己에서 시작되었다.”<sup>1)</sup> (方之有解, 始于成無己<sup>①</sup>)”라고 한 이후로 ‘方解(이하 方論과 方解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고도 불리운다.

현대 방제학에서 방제의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방제로 명칭이 변하여 방제학 교재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론은 宋代에서부터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방론을 전문적으로 편집하여 서술한 것이 金代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의 「藥方論」이며 이곳에서 成無己는 계지탕을 포함하여 張仲景의 『傷寒論』 처방 중 20개에 대해 방제의 성질을 풀어 설명하였다. 이런 宋·金代 방론의 발달의 영향으로, 明代 방제의 해석을 전문으로 한 전문서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吳昆의 『醫方考』이다.

『醫方考』에는 540개 방제를 655조문에 걸쳐 해석하였다. 각 방제마다 “처방 명칭의 뜻을 살피고 연혁을 살피고 變通을 살피고 得失을 살피고 원리를 살핀다. (考其名義, 考其事迹, 考其變通, 考其得失, 考其所以然)”<sup>2)</sup>는 원칙에 근거하여 주치증에 대한 병리해설, 약성이론, 약물의 배오의의 등을 해석하였으며, 이런 한의학적 병리, 치법, 약물 배오이론을 설명하

기 위하여 한의학 고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논거로 삼았다.

『醫方考』와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한다)과의 관계에 대해, 경전의 이론을 운용하고(經理運用) 『內經』의 證을 통해 방제를 해석하여(經證出方) 『黃帝內經·素問』(이하 『素問』이라 한다)의 이론을 임상 실제와 연계시킨 본보기가 되는 작품이라는 연구<sup>3)</sup>가 있으나, 인용된 『素問』의 구체적인 구절과 『醫方考』 방제 구성 해석과의 연계를 분석한 논문은 없다.

방해는 해석 당시의 한의학적 과학으로 어떤 병과 증상에 해당 방제가 어떻게 치료 작용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의 약리적 설명으로 병증을 치료하는 원리를 규명하지 못하는 방제에 대해 기존 의서의 방해들은 그 치료 원리 규명의 공백을 메워주는 의의<sup>4)</sup>가 있다. 따라서 方解는 한의학의 기초과목인 원전학과 본초학의 지식을 임상경험과 융합하는 학문으로, 방제학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구성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에 현재의 방제학 교육에서도 방제의 주치증과 병리에 따른 방제의 구성을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방제를 만든 목적을 이해하고, 방제를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醫方考』에서 한의 고전을 해당 방제 구성요소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

\*Corresponding author : Boo-Kyun Lee. 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50612, Republic of Korea.  
Tel : +82-51-510-8460, Fax : +82-51-510-8460, E-mail : samzon58@pusan.ac.kr

\*Corresponding Author : Jeong-ah Lyu.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50612, Republic of Korea.  
Tel : +82-51-510-8451, E-mail: Lyuja@pusan.ac.kr

•Received : August 21, 2020 / Revised : September 18, 2020 / Accepted : October 13, 2020

①汪昂의 원문에는 ‘陳無擇’으로 되어 있으나, 蔡仁植, 孟華宴의 國譯醫方集解와 連建偉 郭海峰的 醫方集解注釋에 의하면 ‘陳無擇當爲成無己之誤<sup>23)</sup>’라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과 한의학 고전의 내용이 방제의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발견하였다.

## II. 연구방법

『醫方考』 중 萬曆 14년 友益齋本을 低本으로 한 醫聖堂의 1993년 판본을 저본<sup>5)</sup>으로 하고, 亮明齋 刊本을 저본으로 한 中國中醫藥出版社의 2005년 『吳昆醫學全書』의 판본을 대조본<sup>6)</sup>으로 하였다. 『素問』과 『黃帝內經·靈樞』(이하 『靈樞』라 한다)는 洪元植이 校合編纂한 『精校黃帝內經素問』<sup>7)</sup>과 『精校黃帝內經靈樞』<sup>8)</sup>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素問』에 대한 주석은 『醫方考』의 저자인 吳昆의 『素問』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醫方考』의 각 처방의 해석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萬曆 37년 石室刻本을 저본으로 한 中國中醫藥出版社의 2005년 『吳昆醫學全書』의 『素問吳注』를 저본으로 하였다<sup>9)</sup>.

총 71편으로 나뉜 『醫方考』의 권수에 기재된 151

가지의 처방에 “『經』에 이르길(經曰)”, “『內經』에 이르길(內經曰)”로 인용된 문장을 모두 찾았으며, 단, “『論』에 이르길(論曰)”은 『傷寒論』의 인용이므로 배제하였다. 인용된 고전의 출처를 찾아 『醫方考』의 편번호에 맞추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인용된 고전 중 『素問』 내용에 속하는 원문 각각에 대한 吳昆의 주석을 『素問吳注』에서 찾아 함께 기재하였다.

『醫方考』에서 인용한 『素問』의 내용을 범주로 간략화하여, 방제에 있어서 어떠한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수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원전학 수업 교재로 채택 중인 주민출판사의 2009년 『類編黃帝內經』<sup>10)</sup>의 내용 및 12가지 분류 목차와 세부 목차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 책은 한의학원전학회에서 편찬한 것으로, 『內經』의 모든 내용을 총 12편의 상위분류와 각 상위분류 아래 하위분류로 『內經』 원문의 내용과 주석 및 참고 내용, 의논해 붙 문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類編黃帝內經』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RyuPyeon Huangjenaegyung 『類編黃帝內經』

Higher Group	Sub Group
Correspon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通天氣, 天地人, 時間相應, 病變相應
Yin and Yang and Five Phases	陰陽五行, 陰陽, 五行
Life Nurturing	養生法
Visceral Manifestation	臟腑, 精氣神, 身度, 體質
Meridian and Collateral	經絡學說의 기초, 十二經脈, 奇經, 絡脈, 經筋, 皮部, 俞穴
Acupuncture and Moxibustion	鍼具, 刺則, 刺法, 刺鍼禁忌, 灸法
Cause of Disease	病因, 發病, 邪正虛, 陰陽盛衰, 藏府經絡病機, 邪傳
Diseases	溫熱病, 風病, 暑病, 濕病, 痺病, 痿病, 厥病, 咳喘, 痛證, 脹病, 水腫, 積塊, 瘧疾, 消瘴, 失眠, 嗜臥, 癲狂, 癰疽, 瘰癧, 血枯, 子瘡, 失音, 目眩, 十二奇邪, 血證
Diagnostic Method	總論, 望診, 聞診, 問診, 脈診
Treatment	論治의 特徵, 治療原則, 治法, 治方
Five Circuits and Six Qi	五運, 氣의 作用, 司天 在泉 左右間氣의 六氣 六步, 氣交, 天氣之變의 證狀, 六氣之勝의 證狀, 六氣之復의 證狀, 勝復, 六氣의 標●本●中, 運氣合治
Medical Morals	學習方法,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부상자를 돌보자, 醫術에 精通하자, 직책에 정성을 다하자, 엄중한 의료 풍토, 환자를 자상하게 돌보자

『內經』 원문 중 『類編黃帝內經』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내용에 근거하여 임의로 분류하였고, 185회의 인용에 대해 총 31가지로 분류한 후 빈도수를 기재하여 이를 도식화하였다.

자료는 모두 엑셀파일로 데이터화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醫方考』에서는 『內經』의 어떤 부분을 많이 인용했으며, 해당 인용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분석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 III. 결과

#### 1. 『醫方考』에서 인용된 한의학 원전의 빈도 분석

『醫方考』에서는 다양한 고전을 인용하여 처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素問』, 『靈樞』, 『難經』, 『鍼灸甲乙經』 및 王冰의 주석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처방의 수는 총 151개이며 인용된 총 문구는 187개이다. 인용된 『內經』의 출처를 분석해 본 결과 (table 2) 『素問』에서 175회(전체 인용 중 93.5%), 『靈樞』에서 5회 그리고 『難經』에서 6회가 인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素問』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편은 「陰陽應象大論篇」이 총 41회(전체 인용 중 21.9%) 인용되었고, 그다음으로는 「至眞要大論篇」이 총 39회(전체 인용 중 20.8%), 「生氣通天論篇」이 총 13회(전체 인용 중 6.9%), 「六元正紀大論篇」이 총 11회(전체 인용 중 5.8%) 인용되었다.

table 2. Parts and Frequency of the Oriental Medical Classics in Yifangkao

Name of Classics	Chapter(Ch.)	Frequency(Duplicate included)
Huangdi Neijing Suwen	Ch.5 Yinyangyingxiangdalun 「陰陽應象大論」 Yang	41
	Ch.74 Zhizhenyaodalun 「至眞要大論」	39
	Ch.3 Shengqitongtianlun 「生氣通天論」	13
	Ch.71 Liuyuanzhengjidalun 「六元正紀大論」	11
	Ch.8 Linglanmidianlun 「靈蘭秘典論」	9
	Ch.70 Wuchangzhengdalun 「五常政大論」	8
	Ch.33 Pingrebinglun 「評熱病論」	6
	Ch.21 Jingmaibielun 「經脈別論」	4
	Ch.43 Bilun 「痺論」	4
	Ch.39 Jutonglun 「舉痛論」	3
	Ch.34 Nitiaolun 「逆調論」	3
	Ch.22 Zangqifashilun 「藏氣法時論」	3
	Ch.29 Taiyinyangminglun 「太陰陽明論」	3
	Ch.10 Wuzangshengchenglun 「五藏生成論」	3
	Ch.17 Maiyaojingweilun 「脈要精微論」	2
	Ch.40 Fuzhonglun 「腹中論」	2
	Ch.1 Shanggutianzhenlun 「上古天真論」	2
	Ch.23 Xuanmingwuqi 「宣明五氣」	2
	Ch. 11 Wuzangbielun 「五藏別論」	2
	Ch. 68 Liuweizhidalun 「六微旨大論」	2
	Ch. 53 Cijinlun 「刺志論篇」	2
	Ch. 37 Qijuelun 「氣厥論」	1
	Ch. 47 Qibinglun 「奇病論」	1
	Ch. 49 Maijie 「脈解篇」	1
	Ch. 46 Bingnenglun 「病能論」	1
	Ch. 61 Shuirexuelun 「水熱穴論」	1
	Ch. 9 Liujiexianglun 「六節藏象論」	1
	Ch. 13 Yijingbianqilun 「移精變氣論」	1
	Ch. 62 Tiaojinglun 「調經論」	1
	Ch. 66 Tianyuanjidalun 「天元紀大論」	1



	Ch. 65 Biaobenbingchuanlun 「標本病傳論」	1
	Ch. 38 Kelun 「咳論」	1
Huangdi Neijing Lingshu	Ch. 9 Zhongshi 「終始」	2
	Ch. 47 Benzang 「本臟」	2
	Ch. 78 Jiuzhenlun 「九鍼論」	1
Nanjing	Ch. 22	2
	Ch. 75	2
	Ch. 69	2
Zhenjiujiaying	Ch. 19	1

## 2. 『醫方考』에서 인용된 『素問』의 내용 분석

『內經』의 분류는 인용된 『內經』의 원문과 『醫方考』의 내용을 참고하여 『類編黃帝內經』에서 제시하는 목차에 따른 분류법과 세부 내용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하는 목차로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빈도수를 기재하였다. 『類編黃帝內經』의 12가지 상위분류 중 본 논문에 해당하는 분류는 9가지였고,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가 추가되어 총 31가지의 하위분류로 나누었다. 그 내용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단 『難經』, 『鍼灸甲乙經』의 경우 그 수가 적으므로 『素問』과 『靈樞』에 대해서만 분류 및 분석

작업을 시행하였다.

table 3에서는 『類編黃帝內經』의 상위분류와 이에 속하는 편수, 하위분류와 이에 속하는 편수를 제시하였다. 또 해당 분류에 속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醫方考』의 원문 내용 및 인용된 『素問』과 『靈樞』의 원문을 제시하였다. 분류에 따르면 ‘치법’에 속하는 것이 57회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음양오행’에 속하는 것이 41회로 22.1%, ‘병인병기’에 속하는 것이 39회로 21.1%를 차지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the Original Text of the Huangdineijing Cited in Yifangkao

Higher Group	Frequency	Sub Group (Frequency)	Examples
1. Treatment	57	Features of Syndrome Differentiation and Treatment (6)	Yifangkao Ch.19 五屍傳症門, 傳勞百一選方 中 : 『內經』所謂衰之以屬是也. Suwen Ch.74 Zhizhenyaodalun 「至真要大論」 : ...寒熱溫涼衰之以屬... etc.
		Therapeutic Principle (14)	Yifangkao Ch.46 厥證門, 大補丸 中 : 王冰曰:壯水之主 以制陽光. Suwen Ch.74 Zhizhenyaodalun 「至真要大論」 Annotation of Wang Bing about : “岐伯曰:諸寒之而熱者取之陰熱之而寒者取之陽所謂求其屬也”. etc.
		Method of Treatment (37)	Yifangkao Ch.13 秘結門, 通幽湯 中 : 燥者濡之, 生地、熟地, 皆濡物也; 逸者行之, 大黃、歸梢, 皆行物也; 留者攻之, 桃仁、紅花, 皆攻物也; 抑者散之, 升麻之用, 散抑鬱也 Suwen Ch.74 Zhizhenyaodalun 「至真要大論」 : 堅者削之客者除之勞者溫之結者散之留者攻之燥者濡之急者緩之散者收之損者溫之逸者行之驚者平之上之下之摩之浴之薄之劫之開之發之適事為故. etc.
2. Yin and Yang and Five Phases	41	Yin and Yang and Five Phases (1)	Yifangkao Ch.37 厥脹門. 大安丸 中 : 經曰 陰之五宮 傷在五味. Suwen Ch.3 Shengqitongtianlun 「生氣通天論」 : 陰之所生本在五味陰之五宮傷在五味.
		Yin and Yang (23)	Yifangkao Ch.18 虛損勞瘵門, 六味地黃丸 中 : 味厚為陰中之陰 Suwen Ch.5 Yinyangyingxiangdalun 「陰陽應象大論」 : 味厚者為陰 薄為陰之陽 氣厚者為陽 薄為陽之陰 etc.
		Five Phases	Yifangkao Ch. 2 傷寒門, 燒禪散 中 : 又曰 五味入口 鹹入腎

		(14)	<p>腐入腎 穢入腎 乃濁陰歸地之意也 Suwen Ch.74 Zhizhenyaodalun 「至真要大論」 : 悉乎哉問也不治五味屬也夫五味入胃各歸所喜攻酸先入肝苦先入心甘先入脾辛先入肺鹹先入腎久而增氣物化之常也氣增而久夭之由也 etc.</p>
		Five Phases (3) (10. Treatment)	<p>Yifangkao Ch.27 情志門, '敘曰' 中: 故曰: 怒傷肝 悲勝怒. 喜傷心 恐勝喜. 思傷脾 怒勝思. 憂傷肺 喜勝憂. 恐傷腎 思勝恐. Suwen Ch.5 Yinyangyingxiangdalun 「陰陽應象大論」 :...怒傷肝悲勝怒... 喜傷心恐勝喜... 思傷脾怒勝思...憂傷肺喜勝憂...恐傷腎思勝恐. etc.</p>
		Cause of Disease(11)	<p>Yifangkao Ch.3 濕門, 四苓散 中: 經曰濕勝則濡瀉. Suwen Ch. 5 Yinyangyingxiangdalun 「陰陽應象大論」 : ...風勝則動 熱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浮 濕勝則濡瀉. etc.</p>
		Cause of Disease Mechanism of Disease (1)	<p>Yifangkao Ch.10 瘧門, 香薷湯 中: 內經曰: 脈虛身熱 得之傷暑. Suwen Ch.53 Cijinlun 「刺志論篇」 : 氣盛身寒得之傷寒氣虛身熱得之傷暑.</p>
		Cause of Disease (5) (10. Treatment)	<p>Yifangkao Ch.20 氣門, 六君子湯 中: 內經曰 壯者氣行則愈 怯者著而成病. Suwen Ch.21 Jingmaibielun 「經脈別論」 : 勇者氣行則已怯者則著而為病也. etc.</p>
		Mechanism of Disease (9)	<p>Yifangkao Ch.1 中風門, 八味順氣散 中: 經曰 邪之所湊 其氣必虛. Suwen Ch.33 Pingrebinglun 「評熱病論」 : 岐伯曰:邪之所湊其氣必虛... etc.</p>
		Mechanism of Disease (1) (10. Treatment)	<p>Yifangkao Ch.58 腰痛門, 獨活寄生湯 中: 靈樞經曰 能屈而不能伸者 病在筋. 能伸而不能屈者 病在骨. Lingshu Ch.9 Zhongshi 「終始」 : 手屈而不伸者,其病在筋. 伸而不屈者, 其病在骨. 在骨守骨, 在筋守筋.</p>
3. Cause of Disease	39	Deficiency and Excess of Healthy Qi and Pathogenic Qi (3)	<p>Yifangkao Ch.45 痿痺門, 蠲痺湯 中: 經曰 營血虛則不仁 故用當歸以養營. Suwen Ch.34 Nitiaolun 「逆調論」 : ...榮氣虛則不仁衛氣虛則不用... . etc.</p>
		Exuberance and Debilitation of Yin and Yang (6)	<p>Yifangkao Ch.50 驚悸怔忡門, 養心湯 中: 『內經』曰: 陽氣者 精則養神 故用人參 黃芪 茯神 茯苓 甘草以益氣. Suwen Ch.3 Shengqitongtianlun 「生氣通天論」 : 陽氣者精則養神柔則養筋開闔不得寒氣從之乃生大僂陷脈為癭留連肉腠 愈氣化薄傳為善畏及為驚駭營氣不從逆於肉理乃生癰腫. etc.</p>
		Mechanism of Viscera and Bowels, Meridian and Mollateral disease (1)	<p>Yifangkao Ch.12 泄瀉門, 白朮茯苓湯 中: 經曰: 濕盛則濡瀉 故知水瀉之疾 原於濕也. Suwen Ch.74 Zhizhenyaodalun 「至真要大論」 : 太陰在泉客勝則足痿下重便溲不時濕客下焦發而濡瀉及為腫隱曲之疾主 勝則寒氣逆滿食飲不下甚則為疝</p>
		Transmutation of Pathogenic Qi (2)	<p>Yifangkao Ch.64 口齒舌疾門, 柴胡地骨皮湯 中: 氣厥論曰 膀胱移熱於小腸 膈腸不便 上為口糜. Suwen Ch.37 Qijuelun 「氣厥論」 : 膀胱移熱於小腸膈腸不便上為口糜. etc.</p>
4. Visceral Manifestation	30	Viscera and Bowels (24)	<p>Yifangkao Ch.2 傷寒門, 五苓散 中: 經曰: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Suwen Ch.8 Linglanmidianlun 「靈蘭秘典論」 : 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 etc.</p>
		Viscera and Bowels (1)	<p>Yifangkao Ch.47 瘕門, 十全大補湯 中: 又曰: 手得血而能握</p>



		(10. Treatment)	足得血而能步 Suwen Ch.10 Wuzangshengchenglun 「五藏生成論」 : ...足受血而能步 享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Viscera and Bowels (1) (2. Yin and Yang and Five Phases 10. Treatment)	Yifangkao Ch.14 霍亂門, 三因』吐法 中 : 經曰 鹹能軟堅 故可以開宿食頑痰, 苦能湧泄 故探之則易吐矣. Suwen Ch.22 Zangqifashilun 「藏氣法時論」 : 心欲軟急食鹹以軟之 辛酸酸收甘緩苦堅鹹軟 肺苦氣上逆急食苦以泄之 用苦瀉之甘補之
		Essence, Qi and Spirit (1)	Yifangkao Ch.29 傷食門, 備急丸 中 : 經曰 : 升降息 則氣立孤危是也. Suwen Ch.68 Liuweizhidulun 「六微旨大論」 : 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
		Warm Heat Disease (1)	Yifangkao Ch.8 火門, 當歸龍薈丸 中 : 經曰: 狂言爲失志 Suwen Ch.33 Pingrebinglun 「評熱病論」 : 其死明矣狂言者是失志失志者死
		Impediment Disease (4)	Yifangkao Ch.39 小便不禁門, 韭子一物丸 中 : 經曰 淫氣遺溺 痹聚在腎. Suwen Ch.43 Bilun 「痺論」 : 淫氣喘息痹聚在肺 淫氣憂思痹聚在心 淫氣遺溺痹聚在腎 淫氣乏竭痹聚在肝 淫氣肌絕痹聚在脾. etc.
		Cough and Dyspnea (1)	Yifangkao Ch.17 咳嗽門, '敘曰' 中: 經曰 五臟六腑 皆令人咳 非獨肺也. Suwen Ch.38 Kelun 「咳論」 : 五臟六腑皆令人咳非獨肺也.
		Disease of Pain (1)	Yifangkao Ch. 6 腹痛門, 丁香止痛散 中 : 經曰 得炅則痛立止. Suwen Ch.39 Jutonglun 「舉痛論」 : 岐伯曰 寒氣客於脈外則脈寒 脈寒則縮踈 縮踈則脈絀急 絀急則外引小絡 故卒然而痛 得炅則痛立止
		Disetention (1)	Yifangkao Ch.26 噎膈門, 楮實湯 中 : 『內經』曰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 奈何不作噎乎? Suwen Ch.47 Qibinglun 「奇病論」 : 此肥美之所發也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肥者令人內熱甘者令人中滿故 其氣上溢轉爲消渴
5. Diseases	10	Wasting-Thirst (1)	Yifangkao Ch.37 噎膈門, 鷄矢醴散 中 : 「腹中論」曰 有病心腹滿 旦食則不能暮食 此爲何病? 岐伯對曰 名爲鼓脹. 黃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治之以雞矢醴 一劑知 二劑已. Suwen Ch.40 Fuzhonglun 「腹中論」 : 有病心腹滿 旦食則不能暮食此爲何病? 岐伯對曰 名爲鼓脹. 黃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治之以雞矢醴 一劑知二劑已.
		Depressive and Manic Psychosis (1)	Yifangkao Ch.49 癲狂門, 生鐵落 中 : 黃帝問曰 有病怒狂者 此病安生? 岐伯對曰 生於陽也. 帝曰 陽何以使人狂? 岐伯曰 陽氣者 暴折而難決 故善怒也 病名曰陽厥. 帝曰 何以知之? 岐伯曰 陽明者常動 巨陽 少陽不動 不動而動大疾 此其候也. 治之奈何? 岐伯曰 奪其食即已 夫食入於陰 長氣於陽 故奪其食即已. 使之服以生鐵落爲飲. 夫生鐵落者 下氣疾也. Suwen Ch.46 Bingnenglun 「病能論」 : 黃帝問曰有病怒狂者此病安生? 岐伯對曰生於陽也. 帝曰陽何以使人狂? 岐伯曰陽氣者暴折而難決故善怒也病名曰陽厥. 帝曰何以知之? 岐伯曰 陽明者常動巨陽少陽不動不動而動大疾此其候也. 治之奈何? 岐伯曰奪其食 即已夫食入於陰長氣於陽故奪其食即已. 使之服以生鐵落爲飲. 夫生鐵落者 下氣疾也.
6. Correspon	6	Nature and Human (6)	Yifangkao Ch.3 濕門, 不換金正氣散 中 : 內經曰 穀氣通於脾. Suwen Ch.5 Yinyangyingxiangdalun 「陰陽應象大論」 :

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天氣通於肺地氣通於噓風氣通於肝 氣通於心 穀氣通於脾 雨氣通於腎. etc.
7. Acupuncture and Moxibustion	3	Rules of Acupuncture (3)	Yifangkao Ch.18 虛損勞瘵門, 黃芪湯 中 : 經曰 虛則調其母, 脾是肺之母 Nanjing Ch.69 :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病生,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 etc.
8. Diagnostic Method	1	Inspection (1)	Yifangkao Ch.23 嘔吐門, 六君子湯 中 : 經曰 : 安穀者昌 失穀者亡. Suwen Ch.13 Yijingbianqilun 「移精變氣論」 : ...得神者昌失神者亡
9. Five Circuits and Six Qi	1	Treatment based of Five Circuits and Six Qi (1)	Yifangkao Ch.45 痿痺門, 三補丸 中 : 『內經』曰 : 君火以名 相火以位. Suwen Ch. 66 Tianyuanjidalun 「天元紀大論」 : ...君火以明相火以位...

#### IV. 고찰

##### 1. 방제의 개념

방제란 어떤 증상이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방된 방제 구성의 원칙 및 약물간의 배오이론과 배오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그는 방제이름에 대한 의미 설명(方名釋義), 방제의 원류에 대한 고증, 처방의 의미 분석, 상관방제의 비교 및 임상응용방법<sup>11)</sup>을, 張은 방제 이름에 대한 의미 설명(方名釋義), 방제의 원류에 대한 고증(方劑源流), 방제 의미 분석(방제 중 약물 작용 및 약물간의 군진좌사 관계, 해당 방제의 치료 효능), 가감응용<sup>4)</sup>을, 袁은 방제 이름에 대한 의미 설명(方名釋義), 방제의 원류에 대한 고증(方劑源流), 방제 배오, 방제와 처방 및 방제와 약물간의 관계 분석, 임상가감응용, 제량의 변천<sup>12)</sup>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제의 구성요소는 증상에 대한 생리·병리적 규명,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효능 설명, 약물 간의 배오원칙, 임상에서의 가감응용 등의 필수적 요소와, 방제 이름에 대한 해석, 방제의 원류에 대한 고증, 구성약물의 변화 등의 부가적 요소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 2. 방제의 발전

방론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는 北宋시대인 元符 3년 (1100년) 龐安時가 저술한 『傷寒總病論·卷第三』 心下痞證의 반하사심탕 조문 끝에 “下法을 시행한 후에

진액은 속으로 들어가고, 胃는 허하여 상부로 거스르며, 찬 기운이 心下에 맺히었으므로 맵고 단 맛으로 발산함이 적합하다. 반하는 氣를 내리니 쓴 맛이 능히 濕을 없애고 겸하여 心氣를 통하게 한다. 또한 감초의 약력이 크기 때문에 건강과 황련의 배오가 相惡하지 아니한다. (設下後津液入裏, 胃虛上逆, 寒結在心下, 故宜辛甘發散. 半夏下氣, 苦能去濕, 兼通心氣. 又甘草力大, 故乾薑黃連, 不能相惡也)<sup>13)</sup>라고 약물의 효능과 주치 및 건강과 황련의 관계를 분석하여 주석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sup>12)</sup>. 이 후 朱肱의 『活人書』, 寇宗奭의 『本草衍義』, 許叔微의 『普濟本事方』 등도 방론을 기술하고 있고, 李東垣도 『脾胃論』 등 저서에서 방론을 표현하고 있다. 成無己는 『傷寒明理論』에서 “傷寒明理藥方論”이란 제목 아래 張仲景의 『傷寒論』 방제 중 계지탕, 마황탕을 비롯한 20개 처방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sup>14)</sup> 成無己의 『傷寒論』 방제의 해석은 주로 『素問·至真要大論篇』의 “病을 맡아보는 것을 君이라고 하고, 君을 보좌하는 것을 臣이라고 하고, 臣에 응하는 것을 使라고 한다. (主病之謂君, 佐君之謂臣, 應臣之謂使)<sup>7)</sup>에 따른 군진좌사에 근거한 약물 구분을 바탕으로, 『素問·調經論篇』의 “氣가 쏠리는 곳은 血虛가 되고, 血이 쏠리는 곳은 氣虛가 된다. (氣之所并爲血虛, 血之所并爲氣虛)<sup>7)</sup>의 병리, 『素問·藏氣法時論篇』의 “肝이 켜겨서 괴로우면 급히 단맛을 먹어서 완화시킨다. (肝苦急, 急食甘以緩之)<sup>7)</sup>”, “肺가 수렴하고자 하면 급히 신맛을 먹어서 수렴시킨다. (肺欲收, 急食酸以收之)<sup>7)</sup>의 五臟病에 대한 五味의 治





法이론 뿐만 아니라, “風의 淫邪가 이기면 매운 맛으로 고르게하고 쓴맛으로 보좌하고 단맛으로 완화하고 신맛으로 수렴한다. (風淫所勝, 平以辛, 佐以苦, 以甘緩之, 以酸收之; 『至眞要大論篇』 원문은 “風淫所勝, 平以辛涼, 佐以苦甘, 以甘緩之, 以酸瀉之”로 되어 있다)”<sup>7)</sup>의 기후변화에 따른 五味의 治法이론, “신맛과 쓴맛은 솟구쳐 새겨 하니 陰이 된다. (酸苦涌泄爲陰)”<sup>7)</sup>의 五味의 陰陽에 따른 약성이론을 인용하여 약물 배오를 설명하였다.

또한 南宋의 『太醫局諸科程文格』은 의료행정과 의료교육을 담당한 정부기관인 太醫局에서 의학과목(諸科)에 대한 과거시험 답안지(程文)를 수집하고 편집한 것<sup>15)</sup>이다. 그 중 “假合法” 항에서는 증상을 제시하고, 이를 맥을 좇아 어떤 方藥으로 調理하고 치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지를 本經과 本草를 인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모든 처방은 『素問·至眞要大論篇』의 “君이 하나이고 臣이 둘이면 奇制이다. 君이 둘이고 臣이 넷이면 偶制이다.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sup>7)</sup>에 의거 第一道와 第二道에서 奇方과 偶方을 각각 1가지씩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모두 32개의 처방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卷八의 第二道에서는 『諸病源候論·卷之四十三·婦人產後病諸候』 중 產後虛煩의 병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병인과 맥증 처방 및 본초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답안은 『黃帝內經·素問』, 『傷寒論』, 『脈經』, 『諸病源候論』의 내용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인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黃帝內經·素問』 인용: “가을철의 맥상은 저울대와 같아야 한다. (秋應中衡. 『脈要精微論篇』)”, “멀리 있는 것은 偶方으로 한다. (遠者偶之. 『至眞要大論篇』)”, ② 『傷寒論』 인용: “맥이 빠른 것은 허하고 열이 있는 것이다. (數爲虛爲熱. 『辨太陽病·122조』)”, “병자의 맥이 빠르니, 빠른 것은 열이 있는 것이다. (病人脈數, 數爲熱. 『辨太陽病·134조』)”, ③ 『脈經』 인용: “맥이浮하면 허한 것이다. 맥이 빠르면 열이 있는 것이다. (浮則虛. 數則爲熱. 『卷八·平消渴小便淋脈證第七』)”, ④ 『本草經集注』 인용: “단맛은 약간 따듯하다. 허한 것을 보한다. (味甘微溫. 補虛. 『神農本草經』)”, “독이 없다. 천군의 산과 계곡에서 난다. 귀갑을 뿜한다. (無毒. 生川郡山谷. 惡龜甲. 『名醫別錄』)”, ⑤ 『諸病源候論』 인용: “출산으로 血과 氣가 모두 상하여

장부가 허하고 마르니 氣가 체내에서 펼쳐지지 않는 까닭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產血氣俱傷, 臟腑虛竭, 氣在內不宣, 故令煩也. 『卷之四十三·婦人產後病諸候上·十七產後虛煩候』)<sup>7)</sup> 이처럼 송대에 국가가 시행하는 의과시험의 모범답안이 한의학 고전에 대한 원전의 인용을 근거로 치료 방제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方論이 발전한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이러한 송대 방론 발전의 영향을 바탕으로 명대에는 임상에서의 실제적 경험을 결합하여 다양한 방론 전문 서적이 나왔는데 그 중 명대 吳昆의 『醫方考』는 약성의 효능을 좇아 방제를 해석한 전문서라 할 수 있다. 청대에는 羅美的 『古今名醫方論』, 王昶의 『醫方集解』, 吳謙 등의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 및 吳儀洛의 『成方切用』 등 의방을 전문적으로 다룬 방제 서적이 계속하여 출간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모든 방제학 서적에 方解라는 항목으로 편집되어 구성되어 있다.

### 3. 『醫方考』 연구

『醫方考』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오곤의 의학사상을 연구하여 『醫方考』는 경전과 스승의 가르침 혹은 자신의 경험으로 처방을 해석하였다<sup>17)</sup>는 연구가 있다.

중국에서는 『醫方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醫方考』의 방제학적 공헌, 편집의 특색, 부족한 점을 분석한 마의 연구<sup>18)</sup>, 『醫方考』가 『內經』과 『難經』을 본받고, 자기의 새로운 의견도 제시하고, 예방과 치료를 중시한 특색이 있다는 羅 등의 연구<sup>19)</sup> 및 후세에도 『醫方考』의 사상과 방법을 존중하여 방제의 주해를 진행하고 있다는 万 등의 연구<sup>20)</sup>, 『醫方考』는 약성과 오행이론으로 또는 군신좌사, 약성과 오행이론을 함께 사용하여, 또는 약성, 오행과 표본이론을 함께 사용하는 다차원방식이라는 倪의 연구<sup>21)</sup>가 있다.

『醫方考』는 모두 72門 779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情志門」은 방제가 없으며, 灸少陰法·刺期門 등 약물로 인한 치료가 아닌 것과, 井花水·甘梨漿 등 음료수와 蜜煎導法·搐鼻法 등 약물투여방법 및 단일약물 치료의 단방을 제외하면 모두 540개의 방제가 있으며 이중 「傷寒門」, 「虛損勞瘵門」, 「痘門」, 「婦人門」에 대부분의 방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같은 방제가 여러 門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겸용되고 있어 병을 치료하는 구성 약물의 효능을 일정하게 설

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어 「傷寒門」의 감길탕은 少陰病에 목구멍이 아픈 병증을 치료하는데, “감초는 邪氣의 열을 완화시키며 흠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함께하고, 길경은 흥격의 열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목구멍의 병을 치료한다. (甘草緩邪熱而兼發散, 桔梗下膈熱而治咽喉)”라고 설명하였다. 「痘門」에서도 인후가 붓고 아픈 병증을 치료하는데 “감초의 단맛은 實火인 경우는 사하고 虛火인 경우는 보하며, 길경의 쓴맛은 목구멍의 열을 서늘하게 하고 氣熱을 사한다. (甘草之甘, 瀉實火而補虛火. 桔梗之苦, 清喉熱而瀉氣熱)”라고 하여 감초와 길경의 효능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傷寒門」의 흉중에 痰이 많아서 머리가 아픈 병증을 토하게 해서 치료하는 과체산(苦瓜蒂略炒, 赤小豆, 各五分)에서 “『素問』에 쓴맛은 능히 솟구쳐 새게 한다고 하였다. 과체는 쓴 약물이므로 上部에 있는 병증에 사용하면 가슴 속에 있는 實痰을 솟구치게 한다. 陶隱君이 이르길 건조한 것은 濕을 없앨 수 있으니, 적소두 종류가 이것이다. (經曰苦能涌泄. 瓜蒂, 苦物也, 故用之在上, 則涌胸中實痰. 陶隱君曰燥可去濕, 赤小豆之屬是也)”라고 하였고, 「五疔門」의 疔證에 배가 그득하여 토하고 싶은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과체산(瓜蒂, 赤小豆, 淡豆豉, 各五分)에서는 “과체는 맛이 써서 잘 솟구치게 하고, 적소두는 약성이 평하여서 열을 풀어지게 한다. (瓜蒂苦而善湧, 赤小豆平而解熱)”라고 하여 적소두의 약성과 효능을 달리 설명하고 있다. 즉 동일한 감초, 길경, 과체, 적소두에 대해 처방 구성이나 응용한 병증의 상이함에 따라 약성과 효능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醫方考』는 의학경전의 이론을 근거로 들어 방제를 해석<sup>20)</sup>하면서도 오장병에 대한 병리, 군신좌사에 의한 배오, 약물의 적응 병증에 따른 적합한 효능 설명 등으로 방론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청대의 방해 전문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방제학의 방제 해석의 발전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4. 결과에 대한 고찰

吳昆은 『素問』에 대해 일찍이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집안의 학문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토대로 그는 病證의 機理와 方藥의 注釋에 대하여 『醫方考』에서 『內經』 연구에 관한 재능을 걸출하게 나

타내었다<sup>17)</sup>. 또 『醫方考』가 吳昆이 『素問』을 주석한 『素問吳注』보다 10년 앞선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素問』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醫方考』를 저술하고, 그 후 이를 바탕으로 『素問吳注』를 편찬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table 2에 따르면, 『素問·陰陽應象大論篇』이 총 41회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편을 인용하고 있는 목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양오행’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傷寒門」의 계지탕에 살펴보면, 계지의 매운맛이 肌肉을 풀어주는 解肌 작용을 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陰陽應象大論篇」의 “약물의 기미가 맵고 단 것은 발산하는 작용을 하여 양이 된다(氣味, 辛甘發散爲陽...)”는 원문을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頭疾門」의 신이산에 보면, 風이 盛하여 鼻塞이 된 경우에 맑은 陽으로 氣가 얇은 약품인 신이나 천궁, 창이 등을 사용해야 함의 근거로 「陰陽應象大論篇」의 “맛이 두터우면 새게 하고 얇으면 통하게 하며, 氣가 얇으면 새어나감을 발하게 하고 두터우면 열을 발하게 한다.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는 원문을 인용하고 있다. 즉, 吳昆은 약물의 작용을 설명하고, 氣味에 따른 운용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음양오행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篇」을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편은 「至眞要大論篇」으로 총 39회 인용되었으며, 이편의 인용 목적은 대부분 ‘치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痢門」의 도인승기탕에 보면, 이질 초기에 邪氣가 성하고 精氣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 또는 固澁藥으로 오치하여 복통이 몹시 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치법을 설명하기 위해 「至眞要大論篇」의 “積滯가 아주 심할 때 설사가 멎지 않는 假象이 나타난다면 通利시키는 치료법을 쓴다. 병기가 急暴한 경우는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약을 써서 약화시킨다. 病情이 가벼운 것은 病機를 거슬러서 치료하고, 病情이 무거운 것은 假象을 따라 치료한다. (通因通用. 暴者奪之. 微者逆之, 甚者從之)”는 원문을 인용하였다. 또한 「瘧門」의 칠조탕에 보면, 학질이 발작할 때 오한만 있고 발열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치법을 설명하기 위해 「至眞要大論篇」의 “기백이 말하길, 모든 오한하고서 발열하는 경우는 陰을 취하고 발열하고서 오한

하는 경우는 陽을 취함은 이른바 그 귀속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岐伯曰, 諸寒之而熱者, 取之陰, 熱之而寒者, 取之陽, 所謂求其屬也)의 원문에 대한 王氷의 주석인 “火의 근원을 더함으로써 陰의 장막을 꺼트린다. (益火之原, 以消陰翳)”를 인용하였다. 즉, 방제 중 방제가 적용되는 상황 또는 치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至眞要大論篇」 원문과 王氷의 관련 주석을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生氣通天論篇」, 「六元正紀大論篇」을 각각 13회, 11회 인용하고 있다.

즉, 『醫方考』에서 인용되는 고전 원문의 출처를 종합하여 각각을 분류해보니 『素問』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인용된 내용들은 주로 해당 방제가 적용되는 생리·병리적 상황을 陰陽五行論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치료 원리와 적용 가능한 치법을 제시하며, 방제를 구성하는 개별 약물의 약성과 효능을 氣味에 따른 운용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內經』을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예시를 『類編黃帝內經』의 분류<sup>22)</sup>에 따라 각각의 분류의 해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치법과 음양오행에 대한 설명으로 인용된 편이 가장 많았고, 병인병기나 장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편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상위분류 아래 하위분류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인용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치법 중 치료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鼓脹門」의 육군자탕에 脾가 허하여 팔다리를 움직이기 싫어하고 숨이 짧으며 대변이 무르고 설사하는 鼓脹을 다스리기 위해 『素問·至眞要大論篇』의 치료원칙 “脾虛가 엄중할 때 복부가 장만한 假象이 나타난다면 補法을 쓴다. (塞因塞用)”를 인용하고, “그러므로 補劑를 써서 창만을 다스리니, 처음 복용하면 곧 脹이 되지만 오래 복용하면 통하게 된다. 이는 오직 경전의 뜻에 정밀하게 통달한 자라야 알 수 있으니 용렬한 의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리이다. (故用補劑以治脹滿, 初服則脹, 久服則通. 此惟精達經旨者知之, 庸醫未足道也)”라고 하여 치료원칙이 실제 처방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치법 중 치법’에 해당하는 경우, 「秘結門」의 통유탕에 대변이 마르고 뭉쳐서 생긴 복통을 다스리기 위해 “건조한 것은 적셔주니, 생지

황과 숙지황은 모두 적셔주는 약물이다. 머물러 있는 것은 움직여 가게 하니, 대황과 당귀끝은 모두 움직여 가게 하는 약물이다. 정체되어있는 것은 쳐서 몰아내니, 도인과 홍화는 모두 쳐서 몰아내는 약물이다. 눌린 경우는 흩어주니, 승마의 쓰임은 눌리고 답답한 것을 흩어주는 것이다. (燥者濡之, 生地 熟地, 皆濡物也. 逸者行之, 大黃當歸梢, 皆行物也. 留者攻之, 桃仁紅花, 皆攻物也. 抑者散之, 升麻之用, 散抑鬱也)”라고 하여 방제를 구성하는 약물들 각각이 어떤 치료법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素問·至眞要大論篇』 원문을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55편의 인용문이 ‘치법’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다음으로 ‘병인병기 중 발병’에 관하여서는 「霍亂門」의 이중환에 찬 기운이 太陰을 범하여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며 광안이 된 병증의 발병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素問·評熱病論篇』의 “邪氣가 인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정기가 허하였기 때문이다. (邪之所湊, 其氣必虛)”를 인용하여 인삼, 백출, 감초 등의 약물을 배오하는 근거로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병인병기 중 음양성쇠’에 해당하는 경우, 「眼疾門」의 건숙지황환에 血이 약해 心을 기르지 못함으로써 눈이 흐려진 증상에 『素問·生氣通天論篇』의 “陽氣는 정밀하여서는 神을 기른다. (陽氣者, 精則養神)”는 원문을 인용하여, 쇠한 陽氣를 더해주기 위해 인삼과 감초를 배오한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37편의 인용문이 ‘병인병기’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다음으로 ‘장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는 「小便不通門」의 도환산에, 속열이 있으면 少火를 울체함으로써 氣化작용이 되지 않아 소변이 통하지 않게 되는 원리를 『素問·靈蘭秘典論篇』의 “방광은 州都之官으로서 진액을 여기에 저장하였다가 氣化작용을 통해 내보냅니다.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는 원문을 인용하여, 방광의 장상과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이 밖에 29편의 인용문이 장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고 있다.

또한 吳崑은 『素問』의 구문에서 하나의 구절만 인용하여 다수의 처방을 해석하거나, 하나의 방제를 구성하는 약물들 각각에 대하여 여러 구절을 적용해 원문 전체를 인용하기도 하여 하나의 인용구를 다각적

인 측면에서 응용하여 해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table 3의 치법에 속하는 「傷寒門」 저담도법, 흑비법, 음독훈법을 살펴보면 『素問·至眞要大論篇』의 연속된 원문 “굳고 실한 것은 약하게 하고, 사기가 들어온 것은 몰아내고, 피로하여 상한 것은 따뜻하게 보양해주고, 울결된 것은 흩어주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쳐서 몰아내고, 건조한 것은 적셔주고, 오그라든 것은 펴주고, 흩어진 것은 수렴해주고, 虛損된 것은 따뜻하게 보해주고, 머물러 있는 것은 움직여 가게 하고, 놀란 것은 안정시켜준다. 상부에 있는 것은 위로 넘쳐나게 하고, 하부에 있는 것은 밑으로 새게 한다. 안마를 해 주기도 하고, 목욕을 해 주기도 한다. 사기를 몰아내기도 하고, 사기의 발작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열리게 하여 발산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병정에 따라 알맞게 한다. (堅者削之, 客者除之, 勞者溫之, 結者散之, 留者攻之, 燥者濡之, 急者緩之, 散者收之, 損者溫之, 逸者行之, 驚者平之, 上之下之, 摩之浴之, 薄之劫之, 開之發之, 適事爲故)” 중 저담도법에서는 “건조한 것은 적셔준다. (燥者濡之)”를 인용하고, 흑비법에서는 “사기가 들어온 것은 몰아낸다. (客者除之)”를 인용하고, 음독훈법에서는 “열리게 하여 발산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병정에 따라 알맞게 한다. (開之發之, 適事爲故)”를 인용하여 각각의 치법의 근거로 삼았다. 또 「秘結門」 통유탕의 경우 “건조한 것은 적셔주니, 생지황과 숙지황은 모두 적셔주는 약물이다. 머물러 있는 것은 움직여 가게 하니, 대황과 당귀끝은 모두 움직여 가게 하는 약물이다. 정체되어있는 것은 쳐서 몰아내니, 도인과 홍화는 모두 쳐서 몰아내는 약물이다. 놀린 경우는 흩어주니, 승마의 쓰임은 놀리고 답답한 것을 흩어주는 것이다. (燥者濡之, 生地熟地, 皆濡物也. 逸者行之, 大黃當歸梢, 皆行物也. 留者攻之, 桃仁紅花, 皆攻物也. 抑者散之, 升麻之用, 散抑鬱也)”와 같이 방제 구성 약재 각각에 대해 『黃帝內經』 원문을 적용하여 치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이미 인용되거나 연구된 구문도 지속적인 방해 및 임상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처방의 응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吳崑의 『醫方考』라는 방해 전문 서적은 각각의 처방의 주치증에 대한 병리 해설, 치법, 약물 배오이론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당시의 한의학적 원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써 『素問』, 『

靈樞』, 『難經』, 『鍼灸甲乙經』 및 王冰의 주석 등 한의학 고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篇」, 「至眞要大論篇」, 「生氣通天論篇」과 「六元正紀大論篇」 등을 적극 인용하여 음양오행적 원리, 치법, 병인병기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吳崑의 이와 같은 방제에 대한 설명 방법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와 한의방제학 공통교재에서 병기분석과 배오분석의 항에서 『素問』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인용은 한의학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방제의 구성을 한의학 원전과 방제학을 연계하여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 V. 결론

1. table 2에 따르면, 『醫方考』에서는 총 5종류 (『黃帝內經·素問』, 『黃帝內經·靈樞』, 『難經』, 『鍼灸甲乙經』 및 王冰의 주석)의 한의학 고전을 인용하고 있고 이 중 『黃帝內經·素問』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제를 해석하고, 병리·생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table 3에 따르면, 『醫方考』에서는 『黃帝內經·素問』을 인용하여 각각의 구성 약물이 어떠한 치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처방 속에 음양오행이라는 한의학적 원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따라서 『醫方考』는 다양한 한의학 고전의 인용을 통해, 당시의 한의학적 과학을 충분히 활용하여 방제의 주치증, 병리 및 약물 배오 원리 등을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한의학 고전의 인용을 통해 방제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현재의 방제를 이해하는데도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1. Wang A. translated by Che IS, Maeng HS. Euihangjibhae(Korean). Seoul:Daesung Munhwasa. 1998:32.
2. Wu Kun. Yifangkao(醫方考). Guo JS. Wukun Yixuequanshu. Beijing:CPTCM. 2005:6.



3. Luo Meng-xi, Wang Jian, Shi Hai-ping. Wu Kun Yifangkao dui Huangdineiijingde Fahui . J Anhui Univ Chinese Med. 2015;34(4):12-13.
4. Zhang Da-ming, Wang Duan-quan. The Analysis of TCM Formular Interpretation.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7;3(5):25-7.
5. Wu Kun. Yifangkao(醫方考). Seoul:EuiSeongDang. 1993.
6. Wu Kun. Yifangkao(醫方考). Guo JS. Wukun Yixuequanshu. Beijing:CPTCM. 2005.
7. Hong WS combine, compare and edit. Jeonggyo Hwangjenaegyong Somun.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8. Hong WS combine, compare and edit. Jeonggyo Hwangjenaegyong Yeongchu.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9. Wu Kun. Huangdineiijing Suwen Wuzhu(黃帝內經素問吳注). Guo JS. Wukun Yixuequanshu. Beijing:CPTCM. 2005:211, 213, 217, 219, 228, 223-4, 239, 264, 266-9, 287-9, 296, 298, 300, 307-8, 214-5, 323-4, 349, 353, 360, 411. 417-9.
10. School of Korean Medical Classics,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RyuPyeon Huangjenaegyung (類編黃帝內經). 3rd ed. Daejeon:Joomin Press. 2005.
11. Guo Wei-feng. Fanglunde Shengchan He Fazan. TCM Res. 1989;2(3):3-4.
12. YUAN Bing, ZHU Jianping. Textual research of the beginning of discourse on prescription. Chinese J Med Hist. 2003;33(3):152-4.
13. Pang Anshi. Shanghonzongbinglun. Beijing:pmph. 2007:53.
14. Cheng WJ. Shanghanminglilun. Zhao KM. Zhongjiingquanshu. Seoul:Daesung Munhwasa. 1989.619-40.
15. Socho Kug, Namil Kim, Wung-Seok Cha. A Study on The TaeYiKukZieKuaZungMunKyuk (A Collection of Imperial Medical Service Examination Questions and Answers(太醫局諸科程文格). THE JOURNAL OF KOREANMEDICAL HISTORY. 2019;32(1):21-31.
16. Ha Daren. A Collection of Imperial Medical Service Examination Questions and Answers. Seoul:Yougang Publishing company. 1988:100-2.
17. Kim, Hwan-Jin. A Study on Wu Kun's Medical Thought. Dept. of Korean Medicine, Gruduate School, Dong Guk Univ. 2002.
18. Ye Xian-chun, Elabulations on Medical Formulae Investigation. SH. J. TCM. 2007; 41(11):54-8.
19. Luo Meng-xi, Wang Jian. Wu Kun Yifangkao Xueshu Tese. Journal of Anhui TCM College. 2011;30(6):14-6.
20. Wan Si-mei, Wang Xu-guang, Liu Xiang. Wu Kun Yifangkao Fangjixuede Gongxian. J Anhui Univ Chinese Med. 2018;37(2):9-11.
21. Ni Cheng. Lidai Fanglun Moshi Tanjiu. Journal of Shaanx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33(6):26-7.
22. School of Korean Medical Classics,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ibid*:55, 56-7, 86, 88-9, 92, 123, 142-3, 149-50, 165, 172, 183, 189, 391-2, 400-1, 409, 434, 457, 524, 526, 537, 567, 570, 591, 599-600, 611, 626, 640, 717, 718-9, 724, 728-9, 733, 736, 746, 749, 750, 757, 872.
23. Lian JW, Guo HF. Yifangijie Zhushi. Beijing: PMPH. 2007:2.